

BRIDGESTONE TIRE SALES KOREA LTD.
12F, GS TOWER, 508, NONHYEONRO,
GANGNAM-GU, SEOUL, 06141,
KOREA
Phone: 82-2-3210-2480~3
Fax: 82-2-3210-2488
<https://www.bridgestone->

브리지스톤 타이어 후원, 2026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프리우스 PHEV 클래스 시즌 4 차전 결과

- L&T 렉서스 이율, 폭우 뚫고 시즌 첫 우승 - 2 위 강창원, 3 위 표중권 차지
- 용인 나이트 레이스 악천후 속 혼전 - 세이프티카(SC) 두 차례 투입
- 강창원, 종합점수 1위로 부상, 송형진과 자리 바꿈
- 5차전, 9월12~13일 전남 영암 KIC에서 개최 예정
- 브리지스톤 타이어, 오네 슈퍼레이스 프리우스 PHEV 클래스에 3 년 연속 타이어 공급 및 장착 서비스 지원

서울 (2026 년 8 월 24 일) — 전세계 타이어 및 고무 산업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한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브리지스톤의 국내법인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(대표이사 김현영, www.bridgestone-korea.co.kr, 이하 브리지스톤 타이어)가 후원하는 2026 오네(O-NE)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프리우스 PHEV 클래스 4 차전이 지난 22 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나이트 레이스로 열렸다.

L&T 렉서스 소속 이율, 프리우스 PHEV 4 차전 우승

이번 4 차전은 지난 7 월 강원도 인제 3 차전에 이어 연속으로 나이트 레이스로 펼쳐졌다. 인제 3 차전에 이어 이번 경기 역시 젖은 노면에서 진행됐으며, 특히 이번 라운드는 폭우가 이어지면서 선수들에게 더욱 까다로운 주행 환경이 됐다.

22 일 오후 열린 프리우스 PHEV 클래스 결승 레이스에서는 폭우와 젖은 노면으로 인해 스핀과 사고가 잇따르며, 세이프티카(SC)가 두 차례 투입되는 등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다.

같은 날 오전 예선에서는 송형진(어퍼스피드)이 폴포지션을 차지했으나, 결승 출발과 동시에 빠른 스타트로 치고 나간 강창원(부산과학기술대학교)이 선두를 다했다. 이후

선두 탈환을 노리던 송형진이 경기 중반 수막현상으로 스핀해 1 번 코너 외벽에 충돌했고, 차량파손으로 아쉽게 리타이어(경기 포기)했다.

중반 이후 악천후 속에서도 침착하게 페이스를 유지한 이율(L&T 렉서스)은 결승선까지 이어진 강창원의 맹추격을 노련하게 방어하며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았다. 이로써 이율은 시즌 첫 승의 감격을 누렸다. 강창원이 2 위, 표중권(부산과학기술대학교)이 3 위에 올랐다.

인제 3 차전에 이어 이번 용인 4 차전 역시 까다로운 노면 조건에서 치러진 가운데, 브리지스톤 타이어 서비스팀은 현장에서 참가 차량의 타이어 장착 및 타이어 상태 점검을 지원하며 원활한 경기 운영을 뒷받침했다.

프리우스 PHEV 클래스 대회 오피셜 타이어인 브리지스톤 포텐자 RE-71RS(POTENZA RE-71RS)는 고성능 스포츠 타이어로 뛰어난 접지력과 핸들링 성능을 제공한다. 브리지스톤 타이어는 2024 년부터 3 년 연속으로 프리우스 PHEV 클래스 매 라운드에 타이어 공급과 장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. 참가팀과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를 펼치도록 매 경기마다 타이어 교체와 타이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.

2026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 라운드 및 프리우스 PHEV 클래스 5 차전 경기는 오는 9 월 12 일(토)부터 9 월 13 일(일)까지 양일간 전라남도 영암군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(KIC)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

###